

성경의 맥잡기 – Chapter 8. 신구약 중간기

D.P.Joshep 2010-06-07 22:54:40

조회 195 스크랩 0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긴 시간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을 '신구약의 중간기'라 칭합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전혀 없는 침묵뿐이라면 정말 이것처럼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침묵만을 하신 것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구약의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에 성경 말씀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400년의 기간을 바라볼 때 가나안 땅 주변의 열강들의 변화와 이스라엘의 내부에 대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을 보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 세계사에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강들을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제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을 통하여서 바벨론 시대에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인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으며,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보면 그 제국은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 도시국가들과도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큰 전쟁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이오니아의 반란으로 인한 1차 전투였지만 파도와 풍랑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군이 물러나게 되고, 두 번째는 다리오 1세에 의한 전투로서 올림픽의 종목인 마라톤의 계기가 된 마라톤 전투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 '300'의 배경이기도 한 전쟁인데,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스간의 전쟁이었는데, 살라미 해전에서 패하여서 물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의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철학과 문화가 성장하게 되고 인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왕의 헬라제국의 시대를 보면, 알렉산더 왕은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으며 동방으로의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인 '오리엔탈 문화'가 합쳐지게 되는 데, 이를 헬레니즘 문화라 합니다. 이 문화는 로마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알렉산더 왕은 여러 문화를 하나로 통일 시켰습니다. 그에 한 부분으로 종교도 혼합시켰습니다. 이것은 유일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후에는 나라가 네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헬라 제국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은 바로 세계의 모든 언어를 헬라어로 통합 시키신 것입니다. 당시의 말씀은 모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국의 언어가 되어버린 헬라어로도 70인의 성경이 쓰여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 헬라 제국은 네 개의 나라로 분리되었는데,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 팔레스타인이 있는 시리아 지역은 셀류커스 왕조,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더 왕조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코스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역적으로 군사적으로나 교통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그렇기에 각 나라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눈독을 들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가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셀류커스 왕조가 이기게 되었고 팔레스타인 왕조를 셀류커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각 지역에 종교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짐으로서 전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되지만, 로마 제국의 견제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지나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뇌물을 통하여서 야손을 대제사장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왕을 위해서 할레나 율법 등을 못 지키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절기도 또한 지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안디옥'과 같은 자신의 이름을 딴 마을이 16개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고 열렬한 헬라주의자입니다. 야손 다음 대제사장인 메델리우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우스를 동일시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